안녕하세요? 오늘은 1부, 첫 번째 파트의 10강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어떻게 믿어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람직한 종교 생활, 종교적인
가치를 현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제대로 구현하는 것에

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에
10번의 강의들을 통해서 종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한국의 종교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전체적으로 짧지만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완결판 비슷하게 결론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라고 하는 거는 현대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과 중요성은 여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가 주는 위안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 세계관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해답 체계로써

종교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목욕물을 버리더라도 아이는 버리지 않는

것처럼 종교가 주는 위안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활용하는가라는 문제에서는 개인이 혹은 종교

전통이, 제도 종교가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쭉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거는 제도화된 종교 혹은

전통 종교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유형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적인 가치들인 거죠.
예컨대, 예전 시대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인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아예 글 자체를 읽지
못했습니다. 가톨릭, 기독교의 사례를 들면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보통 사람들은 읽지 못했지만 신부들 혹은 수녀들.
그러니까 수녀들도 대부분 못 읽은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신부들만이 교육자로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계층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글을 읽을 수
있고 경전을 마음대로 접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종교 전통의

경전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전통의 경전들을 자연스럽게 읽게
되고 특히나 이제 세속적 세계관이 발전함에 따라서 민주적인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
세계관이 대체할 수 없는 독자적 영역을 확실하게 만들어낸

시대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종교의 의미, 종교의 기능과
같은 것들, 전통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고 이 물음이 자칫 종교의 존재,
혹은 종교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왜 자꾸 종교가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 대목에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종교가 그 주장하는 가르침,
사랑과 자비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강조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과

주장 혹은 현실과 이상 간의 간극 때문에라도 이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 종교 혹은 전통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바람직한
방식의 신앙생활 혹은 종교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심층 종교를 말씀드리면서 심층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변화와 발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표층으로 시작하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신앙의 이해와 신앙의 활동들이

있었다고 하면 어른이 되고 더 큰, 더 나이 먹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거기에 걸맞은 신앙생활과 교리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이런 식의 변화하는
종교 생활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특히나 몇 가지 점에서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개인이 주체가 되는 종교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불교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무소 하면 무소가

물소라고 생각하는데 무소는 코뿔소입니다.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우뚝 서가지고 자신의 주체성 혹은 자신의 개인의

권리라든지 자발성. 이를 버리지 말고 자신이 주체가 돼서
생활하는 종교 활동들이 21세기에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동시에 개인이 주체가 되지만 또 다른 주체가 된
개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종교 생활이 이루어질 필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종교의 근원
혹은 종교의 가장 핵심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타적인 것.

혹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관계의 덕목들을 우리가 실천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가 주장하는

행복들을 실천해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버려야 되는 태도가 독선적 태도겠죠.

이 절대적 세계관으로써 종교적 진리를 나만이 알고 있다.
혹은 내가 믿고 있는 종교만이 유일한 종교적 진리이고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올바른 종교적인 교리 혹은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혹은 유연하게

확장시키지 않으면 교리와 현실 그다음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그다음에 종교 내부, 종교 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점은 21세기라고 하는 곳이 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합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연결이고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국에 한 번 가더라도 60년대
같으면 배를 타고 몇 달 걸려서 가거나 심지어 가지 않으면

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전 세계의 일들을 자기 손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시에 곧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 타인과의 만남, 자기 아닌 것과
만남이라고 하는 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연결되고 있고

만나고 있는 이 시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세계관인 종교적 교리의 해석 혹은 실천이 이런 시대 변화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영하지 않으면 이 현대 사회에서
종교라고 하는 게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가 한편 전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이 변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불교 경전도 이미 정착이 되고

나면 새로운 불교 경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 계속 새로 쓰이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기본적으로 전통 지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의 변화라든지 미래 사회의 변화.

특히 이제 만남이 활발해지는 이런 것들을 반영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종교라고 하는 거는 명상, 종교 체험, 심층 종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는 근본적으로 자기 정체성의 확장을

종교의 가장 궁극적이고 본원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육체에 국한돼

있는 이 21세기 시간과 공간에 특정한 맥락에 갇혀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내 속에 예를 들어서 불성이 있거나

신성이 있거나 혹은 천도교식으로 보면 하늘님과 같은
존재들을 모시고 살아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게

되면 내가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맥락의 한계성을
초월하거나 넘어 뛰는 존재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한 형태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종교가
전통 지향적이고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그저 지켜나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더 발전적으로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포함해서 뭔가 자신이 지금 알고 있지 않은 어떤 것.
그러니까 마음의 차원일 수도 있고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존재나 그 차원의 실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된 존재로

발전해나갈 거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라고

하는 곳은 인류가 발전시켜온 모든 종교 전통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이미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큰 존재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종교만큼 좋은 텍스트가 없는데 이 텍스트들이 한국에는 이미
풍부하게 다종교 상황에서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곳이 비빔밥. 이거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정한 요소들의 정체성들을 섞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너무나 자질 있고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사례로 폭탄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맥주와 소주 혹은 맥주와 양주를 섞는다라고

하는 거는 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이해하기 힘든 건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식으로 즐겁게

섞어보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써 Hybridity, 이 혼합시키는 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세계관들,
이질적인 종교적 세계관 그다음에 종교적 세계관과

비종교적인 세계관들을 섞어서 뭔가 새로운 인간 이해,
존재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끝으로 이 한국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갈려 있는데 이 분단된 상태가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이 다시 평화롭고 원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역사적 경험 자체가 또 인류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가 현실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넣는 것들을 해소하고 완화시키고
이런 새로운 모델들을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소위 민족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후천개벽,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운영하는 원리들이 펼쳐지는 사회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21세기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거창한 얘기입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종교 상황 그다음에 올바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11-05 오후 1:28:19]